

**담당 : 홍보팀 송다혜 사원ㅣ Office : 02)560-4448 ㅣ Mobile : 010-7680-310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‘제15회 롯데 오픈’ 1R 오전조 주요 선수 코멘트**

**마다솜, 김효주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제15회 롯데 오픈 |
| 2 | 기 간 | 2025년 7월 3일(목) ~ 7월 6일(일) |
| 3 | 장 소 |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[미국(OUT) / 오스트랄아시아(IN)]  |
| 4 | 주 최 | 롯데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2억 원 (우승상금 2억 1천6백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684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32명 |
| 9 | 주요출전선수 | 이가영, 고지우, 이예원, 최혜진, 김효주, 박현경, 이동은, 홍정민, 방신실, 노승희김민선7, 정윤지, 김민주, 박보겸, 최예림, 성유진, 장하나, 이정민, 황유민, 이소영김시현, 정지효 등[‘제15회 롯데 오픈 퀄리파잉 토너먼트’ 상위자격 출전자]- 프로: 고지원, 김나영2, 김윤경2, 박예지, 백소원, 서하영, 손연정, 송가은,  송민교, 신지원2, 심지연, 양진서, 장은수, 정세진, 정지현, 허윤서 / 16명- 아마추어: 안윤주(A), 양윤서(A), 최정원(A) / 3명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[2라운드] 11시 ~ 17시[3라운드] 10시 ~ 16시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마다솜 1라운드 중간합계 5언더파 67타 \*14시 기준 단독 선두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401>

**오늘 버디 6개, 보기 1개로 5언더파 현재 기준 단독 선두다. 경기 흐름은?**
초반에는 티 샷이 조금 흔들려서 해저드에 빠지기도 했지만, 다른 클럽들이 잘 따라줘서 잘 마무리했다. 후반부터는 드라이브와 아이언 샷 감도 좋아져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.

**약 두 달 만에 67타를 기록했는데, 성적이 다소 잠잠했던 이유는?**
성적이 아주 나쁘진 않았지만 썩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었다. 경기를 계속 뛰다 보니 루틴이 조금 흐트러졌던 것 같고, 지난주에 쉬면서 기본기를 다시 다잡은 것이 도움됐다.

**남은 라운드에서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.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인가?**
여름철 더위에 약한 편이라서 체력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. 체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좋은 성적을 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.

**내일 경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?**
내일은 오후 티업이라 더 더운 환경에서 치르게 될 것 같다. 체력을 최대한 비축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.

**◈ 김효주 1라운드 중간합계 2언더파 70타 \*14시 기준 공동 10위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375>

**오랜만에 KLPGA투어에 출전해서 중간합계 2언더파로 마무리했는데, 경기 소감은?**

LPGA투어에서도 몸이 좋지 않아 기권했던 터라, 오랜만에 대회에 나서게 돼 설레는 마음으로 라운드를 시작했다. 큰 실수 없이 플레이했고, 만족스러운 구질의 샷도 몇 개 나와서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라운드였다.

**기권 당시 몸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땠는지?**
허리가 좋지 않아 폴로스루가 잘 되지 않았고, 드라이버 거리가 30야드 이상 줄었다. 공을 제대로 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.

**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경기를 치렀는데, 체력적으로 어떤 부분을 신경 썼는지?**
나는 더운 날씨를 좋아하는 편이다. 습한 날씨도 괜찮고, 건조하면서 더운 날씨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오늘처럼 더운 날씨도 나쁘지 않았다. 아침부터 더운 기운을 느끼면서 오히려 좋다고 느꼈다.

**스폰서 대회인데, 각오 한마디?**
스스로도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. 남은 3일 동안 더 많은 버디를 잡고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쳐서, 스폰서 대회에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잘하겠다.